

원유·나프타 추가 확보 총력전,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긴급 화상회의 개최

- 중동·아프리카 등 11개국 상무관 및 15개국 KOTRA 무역관장 참여
- 주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 방안, 대체 공급원 확보 전략 등 논의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3월 31일(화) 2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·아프리카, 아시아, 미주 지역 등 11개국 상무관 및 15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무역관장, 한국석유공사 및 KOTRA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관계자와 주요 자원(원유·나프타)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.

금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 심화 및 국내 산업계의 원유 및 나프타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, ▲ 주요 자원(원유·나프타)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방안 ▲ 원유·나프타 신규 및 추가 도입 후보국 현황 ▲ 주요 수입국 이외의 대체 공급원 확보 전략 등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공급망 불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, 해외 수입국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물량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모든 가용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.

한편,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“단순한 동향 파악 및 분석을 넘어 각국 현장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”는 점을 강조하고, “우리 기업들의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해 현지 정부 및 핵심 자원 기업들과의 협력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”는 점을 각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들에게 당부하였다.

산업통상부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주요국 주한대사들과의 면담은 물론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함으로써, 주요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	책임자	과 장	이중엽 (044-203-5720)
	중동아프리카통상과	담당자	사무관	최우진 (044-203-5723)